

일일 국제 기후·에너지 동향

기후·에너지 정책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탄소세 폐지 가능성 시사(주밴쿠버총영사관)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David Eby 수상은 9.12(목)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세가 없는 주에 대해 연방탄소세가 대체 부과되는 현행 제도(federal alternative tax)*가 없다면 앞으로 BC주 탄소세를 폐지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함.

* 개 연방법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연방이 탄소세를 대신 부과하는 조항이 있으며, BC주의 경우 주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연방 탄소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상황임.

- 캐나다에서는 BC주가 2008년 북미 최초로 주 탄소세를 도입
- 개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톤당 20불의 전국적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를 2024.4월 기준 80불까지 상향
- Eby 주수상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BC 주민들이 아닌 기후변화 원인 제공 기업들에게까지 주 탄소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자신의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 연방정부의 대체 탄소세 부과 제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번 주수상 발언은 캐나다 소비자들을 위해 현행 탄소세 체제를 반대해갈 것이라고 한 연방 신민당 Jagmeet Singh 당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전통적으로 탄소세 무용론과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BC 보수당 John Rustad 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Eby 주수상의 갑작스러운 탄소세 폐지 발언은 다가오는 주총선에서 패할 것을 우려해 내놓은 미봉책이며 정치적 난파를 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아울러, BC 녹색당 Sonia Furstenau 당대표도 BC 주수상의 이러한 태도 돌변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후 리더쉽과 멀어지는 양상으로서 현행 Eby 주수상 정치적 리더십으로서 산불, 홍수, 고온 등 2021년 BC주 경제에 100-170억불의 피해를 입힌 기후 재앙 악영향에 원활히 대처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온실가스 감축

◆ 덴마크 오스테드社,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주덴마크대사관)

- 덴마크 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Ørsted)社は 동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인 Esbjerg 발전소를 8.31(토) 폐쇄하였다고 발표함.

※ 오스테드社は 2025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99%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2006년 수립하여, 석탄 대체 바이오매스를 도입하는 등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결과,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92%를 감소시켰고, Esbjerg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간 석탄 소비량은 약 50만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20만톤으로, 동 시설 폐쇄는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이정표로 평가
- 오스테드社は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을 완전히 전환하는 최초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덴마크 사회 전체가 최대한 빠르게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끝.